

독일한마음풍물패와 한마음풍물패 단원들이 풍물놀이 연습 후 활짝 웃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독 청년들의 모습이 불교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듯하다.

韓·獨청년의 한마음 풍물 '얼쑤~ 좋다'

독일한마음풍물패 내한공연 현장



풍물 연습하는 독일한마음풍물패와 한마음풍물패.



독일한마음풍물패 최연소단원 '아리'가 장구를 치고 있다.



4월 28일 진행된 한마음선원 장엄등점등식 공연.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얼쑤~ 한바탕 놀아보세!"

4월 28일 안양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 특설무대가 신명나는 우리 가락으로 가득 채워졌다. 장단에 맞춰 들썩들썩 하다보면 어느새 흥겨운 봉축 분위기에 푹 빠져든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풍물을 치는 이들이 한국 청년들이 아니다. 눈 푸른 서양의 청년들이 구성진 추임새를 넣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바로 독일한마음풍물패였다.

이날 한마음선원 점등식에서는 독일한마음풍물패와 한마음풍물패가 함께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독일청년들의 풍물솜씨에 대중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독일한마음풍물패는 대행 스님이 1996년 독일에 설립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대행 스님 가르침인 생활참선을 배우고 익힌 학생 9명으로 구성됐다. 한마음선원 신도 자녀들로 구성된 이들은 어려서인 2004년부터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풍물을 익혀왔으며 2017년 본격적으로 풍물패를 창단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개월 전부터 입국해 한국청년들로 구성된 한마음풍물패와 손발을 맞춰왔다.

이들은 3~4살때부터 사찰에서 커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친구들이었다.

재독교포 2세인 이승일(쾰른 국제경영대학) 씨는 "오래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마음합창제에서 처음으로 풍물을 하게 됐는데, 그 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여름방학마다 모여 2주씩 풍물을 쳐왔다. 2017년 김주완 선생님을 지도자로 하여 제대로 배우고 풍물을 배우게 됐다. 처음 시작할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자녀 모임
어려서 한국 알기위해 풍물 배워
2017년 본격적으로 풍물패 창단

때 김주완 선생님이 한마음선원 안양본원팀도 풍물을 가르치니 언젠가 부처님오신날이 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친구들과 이번 점등식과 제등행렬 등에 같이 설 기회가 있어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매우 즐거운 일이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모리츠 에플레(Moritz Epple, 하이델베르크대 석사과정) 씨는 "한국문화, 특히 불교문화는 굉장히 역동적이어서 매력이 있다"며 "연등회 기간 수많은 불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듯 독일에서 이번 연등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 다니며 모태신앙으로 불교를 믿고 있었다. 9명 모두가 나이 대 또한 동년배거나 한두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5년 음악 공부를 위해 독일로 유학길에 오른 최웅식 씨(뒤셀도르프음대)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이들 모임에 함께 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최 씨는 "처음 독일 유학생활 동안 생활에 적응을 도와 줄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했다. 비슷한 나이대에 한국문화를 잘 알고 있는 독일 친구들이 있어 큰 힘이 됐다. 대학 진학으로 모두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수시로 연락하며 힘이 되고 있다"며 독일 생활 초기를 회상했다. 또 음대에 진학한 친구들에게는 풍물을 하는 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털어놨다.

어려서부터 불교를 믿었지만 기독교 국가에서 소수종교인으로 사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이들은 종교적 믿음과 함께 최근 마음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답했다.

한나 에플레(베를린대 교육대학) 씨는 "독일에서는 마음공부, 수행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불교 가르침 속에는 이러한 마음수행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콥 슈타찡어(뮌스터대) 씨도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하고 다스리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가 일맥상통한다. 부모님의 권유로 선원에 나오게 됐지만 지금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독일지역에서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으면 초청받곤 한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들의 풍물과 한국사랑에 대해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은 "음악과 문화는 동과 서를 뛰어넘는다. 특히 풍물은 한국의 전통음악이기에 동과서와 남과 북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좋은 지혜로운 길이다. 명상을 10시간 하라고 하면 못 견디지만 다양한 음악을 통한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 한국에 아이들이 이번에 온 것도 스스로 좋아서 온 것"이라며 "독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습하고, 즐기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한국불교계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한마음풍물패는 4월 2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봉축점등식에서 풍물 공연을 펼친데 이어 4월 29일 아내안문화원(옛 황실차문화원)이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인근서 개최한 '동 · 서양 대지에 절하다' 음악회에 초청받아 우중에도 흥겨운 무대를 만들었다.

마음愛 자비를! 2019년 부처님 오신 날 세상愛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 실 현봉 근일
주 지 법산 자현
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성오 기획국장 등목
교무국장 운담 재무국장 구견
사회국장 도선 포교국장 등안

사부대중일동

의성군노인복지관 관 장 휴 담
영주장애인복지관 관 장 도 선
연 화 마 을 시설장 구 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 장 김성동
안동장애인복지관 관 장 변만호
고운노인요양원 원 장 정명관
의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옥희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 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 팩스 054)834-6935 | 사찰음식체험관 054)834-2324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